

재미 기러기엄마의 경험과 성장: 관계문화적 상담의 관점에서*

조 인 효

심 은 정[†]

송실대학교

본 연구는 기러기엄마의 경험과 심리사회적 성장을 관계문화적 상담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상담적 개입의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관계문화적 이론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여성의 관계성을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틀을 제공했다. 본 연구를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한인사회 근교에 거주하는 14명의 기독교인 기러기엄마들을 심층 인터뷰하고, NVivo 10을 활용하여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러기엄마의 심리사회적 성장을 저해하는 도전적 요인과, 성장을 도와주는 긍정적 자원이라는 차원이라는 2개의 차원이 추출되었다. 도전적 요인 차원에는 3개의 범주, 10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24개의 개념이 추출되었다. 도전적 요인의 개인내적 요인으로 비자발적 선택, 역할유능감 저하, 관계 위축감이, 가족적 요인으로 부부갈등, 모자 갈등, 부자 갈등이, 그리고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한인사회의 편견, 신분유지의 필요성, 미국내 차별, 물리적 거리가 있었다. 긍정적 자원 차원에는 3개의 범주, 10개의 하위범주, 21개의 개념이 추출되었다. 긍정적 자원의 개인내적 요인으로 역할 유연성 등의 성격특성과 종교성이, 가족적 요인으로 부부요인, 자녀의 적응적 생활, 부모-자녀간 원만한 관계, 시집과의 분리가, 그리고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통신의 발달, 한인사회의 접근성, 교육환경의 혜택, 신분유지의 필요성이 있었다. 기러기 엄마들은 기러기 생활 속에서 많은 도전거리를 만나지만 이를 자기공감과 상호관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극복하면 자아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문화 상담적 개입의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기러기엄마, 관계문화적 상담, 심리사회적 성장

* 본 원고는 조인효(2013)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심은정, 송실대학교 베어드학부,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69 송실대학교 연구관 116호

Tel : 02-828-7105, E-mail : ejshim@ssu.ac.kr

국경을 넘어 분거하여 지내는 가족을 초국적 가족(transnational family) 또는 다국적 가구(multinational household)이라 한다. 이전의 초국적 가족은 대체로 미혼여성이나 생계 부양자인 남성이 부인과 자식 등 가족을 본국에 두고, 돈벌이를 위해 더 잘사는 나라에 가서 노동이민을 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혼 여성들이 자녀와 남편을 본국에 두고 다른 나라로 이민하여 돈벌이를 하거나, 본국에 있는 남편이 돈을 벌며 해외로 이주한 식구들을 부양하는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초국적 가족의 대표적인 한국적 형태가 기러기 가족이다(조은, 2004). 기러기 가족은 자녀의 교육을 중심으로 가족이 서로 다른 나라에 살게 되는 가족형태를 일컫는다. 한국의 기러기 가족은 어머니가 자녀들과 해외로 떠나고 아버지가 본국에 남아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기러기 가족은 부부관계를 희생하면서도 자녀의 교육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러기 현상은 1990년대 중반이후로 확산되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이 작용한다. 무엇보다 교육적 성취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신분상승의 주된 수단으로 강조되어왔다(Kim, 2012; Tsuya & Choe, 2004). 정부가 1990년대에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면서 세계화 정책을 발표했고, 이러한 정책은 세계 경제 시장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낸다는 새로운 교육 목표를 내세웠다(Shin, 2010). 정부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새롭게 영어를 추가하였고, 이는 영어교육 과열과 조기 영어교육으로 이어졌다. 부모들은 자녀교육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과중하게 느꼈고, 자

연스럽게 한국에서 드는 비용으로 더 나은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일시적 이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녀들을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에 조기유학을 보내거나 유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도 함께 이민을 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후자에 해당하는 기러기 현상은 1999년 말에 학생들의 조기유학 금지법이 폐지되면서 확산되었다. 외국 체류 및 학비 등을 감당할 만큼의 경제력을 갖춘 중산층을 중심으로 세계화 시대에 맞는 신분 상승을 꿈꾸며 기러기가족을 선택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퍼졌다(Park & Abelmann, 2004).

기러기 가족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소수지만 꾸준히 진행되었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러기 가족 전반에 대한 탐색적 연구(김기화, 양성은, 2012; 김양희, 장은정, 2004; 김희정, 최연실, 2012; 유희정, 김세서리아, 2005; 조은숙, 2010; 최양숙, 2008), 기러기 부부의 관계에 대한 연구(김양호, 김태현, 2009; 최양숙, 2006), 기러기아빠의 적응에 대한 연구(김성숙, 2006; 김주현, 송민경, 이현주, 2010; 엄명용, 2002; 최양숙, 2005), 그리고 기러기엄마의 경험에 대한 연구(김경화, 2010; 김선미, 2007; 김영희, 최명선, 이지향, 2005; 조은, 2004; 조혜선, 2004)로 대체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전반적인 연구결과는 긍정적 측면으로 기러기 가족이 분거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거나, 고생하는 가족원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자녀들이 교육적 성공을 거두는 경우 자긍심을 느끼고, 아내의 경우 한국에서의 시집을 비롯한 가족 갈등관계에서 도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발견되었다(김양희, 장은정, 2004; 김희정, 최연실, 2012; 유희정, 김세서리아, 2005).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 경제적 부담감의 증가, 부부관계의 친밀성 약

화와 외도의 위협, 사회의 부정적 시각, 남편으로서 가족생활을 잃어버린 외로움과 아내의 부재로 가사일의 어려움, 아내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 가중 등이 지적되었다(김기화, 양성은, 2012; 김성숙, 2006; 김주현 외, 2010; 엄명용, 2002; 조은숙, 남영주, 2010).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러기 가족에 대한 연구는 기러기 현상 자체를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심리상담적 측면에서 현상에 접근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김희정과 최연실(2012)이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관점을 중심으로 심리상담적 측면에서 기러기가족의 가족 구조를 분석한 정도가 전부여서, 기러기가족의 심리적 필요는 부각된 것에 비해 심리상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러기엄마의 경험이 여성의 자아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러기 가족 중 기러기엄마의 경험을 여성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심리상담적 접근에서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적 개입을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Cha와 Kim(2013)은 한국 기러기 현상의 중심에 역할중심의 가족체계와 모자중심적인 가족체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 현상을 “가족중심 집단주의”라고 명명하였다. 기러기 가족은 가족 집단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더라도 가족의 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가족 전체의 성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각 구성원의 자아는 가족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여성의 자아는 가족의 필요에 의해 더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특히 Cha와 Kim은 현대 한국 가족의

중심이 엄마-자녀 관계인데, 그 속에서 여성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녀들의 엄마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해 간 나라는 북미인 경우가 많은데, 북미는 대표적인 개인주의 나라로 개인의 독립과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문화의 근간을 이루며, 가족체계에 있어서 모자관계보다는 부부관계를 우선시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기러기엄마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관에 도전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는 기러기엄마가 분거경험을 통해 자율성과 자기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소개되기도 하였다(김경화, 2010; 김선미, 2007; Lee, 2010).

본 연구에서는 기러기엄마의 경험을 관계문화적 이론(RCT: Relational-Cultural Theory)을 중심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관계문화적 이론은 특히 소녀와 여성에 대한 심리 상담적 자료를 기초로 하여 관계적 관점에서 여성의 발달을 논하는데, 내담자의 다양성과 관계적 발달을 증진시키는 창조적인 상담 접근법으로 각광받고 있다(Duffey, 2007).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은지와 이지연(2013)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 관계성 회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이론으로 관계문화적 이론을 소개하였다. 관계문화적 이론은 여성의 관계성이 남성위주의 전통적인 사회에서 폄하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한다. Miller(1984)와 Jordan(1997)은 Freud의 추동 모델이나 Kohut의 자기심리학과 같은 전통적 이론이 분화된 자기(separated self)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연결성(connectedness)과 공동체(community)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놓쳤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관계적 경험”(being-in-relationship)이 자기감(sense of

self)의 시작이며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관계-문화적 이론은 상담 장면에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이은진, 이지연, 2013; Jordan, 2000). 예를 들어, 전통적 남성위주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은 타인을 돌보는 것에만 전념하고, 의존적이고, 지나치게 감정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관계-문화적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이 처해있는 가부장적 사회의 맥락과 그 여성의 경험을 평가절하 하는 지배문화의 관점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여성의 관계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주목한 관계문화적 상담 이론은 한국의 여성의 경험, 특히 기러기엄마의 경험을 이해하고 상담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전통적 유교 문화에서 한국의 여성의 역할은 관계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들은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해야 했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아내가 되어 가족을 섬겨야 하고, 특히 남편에게 의존하고 순종해야 했다(Choi, 2005). 만약 그러한 역할이 수행되지 않으면, 여성들은 수치심과 벌을 받거나 사회로부터 거절되었다. 현대 한국의 여성의 역할은 중산층이 생겨난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무급의 가정고용인과 자녀를 성공을 돕는 애정 어린 엄마에 제한되었다. 그러나 1991년에 가정법이 개정되면서 결혼과 가족, 그리고 친족 사이에서의 여성의 차별이 금지되었고, 여성은 전에 없었던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법적인 평등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직업적 성취의 기회는 남성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은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강화해가게 된다. 아버지는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훈련시킬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한 권위를 어느 정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어머니들이 주로 그 자리를 메우게 되었다. 이들은 마치 자신의 사회적 성취에 대한 꿈을 자녀들을 통해 대신 실현하려는 듯 자녀들의 교육에 온통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Chung(2008)은 현대 한국 여성이 향상된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전보다 더 혼란된 자아 정체성과 역할을 경험하고 있으며, 한국의 어머니들은 사회적으로 상호관계를 통한 자존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Lee(2010)는 재미 기러기엄마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그들은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엄마들의 선택은 억눌려진 자신의 성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고 기러기엄마로서의 분거경험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러기엄마들은 한국의 전통적 가족체계를 깨고 기러기 가족이라는 새로운 가족체계를 구축한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버려진 아빠, 혹은 희생된 아빠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치하고 있는 엄마의 이미지가 대비되기 때문이었다(Ahn, 2009).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기러기엄마의 경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다.

관계문화적 관점에서 성장은 관계적 유능성의 발달에 있다(Jordan, 2010; 이은진, 이지연, 2013). Miller(1991)는 여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관계성에서 찾았다. 그는 '관계 속의 자아(self-in-relation)'를 통해 자아가 존재하는데, 그 자아와 연결된 다른 자아와의 만남이 관계라고 설명하였다. 자아가 없는(selfless) 만남은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아니라 자아가 지나치게 팽창되고 상실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나

치게 분리되고 독립적인 자아는 스스로 너무 고독하게 느낄 수 있다. 관계적 유능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상호적인 배려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성장을 이끄는 상호관계(connection)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보다는 받아들이고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내적 자아와 성찰적인 만남을 갖는 것은 성장 가능성을 높여준다. 기러기엄마의 경험은 상호연결, 관계단절, 상호 공감, 상호 역량강화, 진솔성, 통제적 이미지, 관계적 탄력성과 같은 관계문화적 이론의 핵심개념(이은진, 이지연, 2013 참조)을 중심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러기엄마의 경험은 관계문화적 이론의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볼 때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둘째, 기러기엄마에 대한 관계문화적 상담의 함의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방 법

기러기엄마의 경험을 관계문화적 이론에서 제시하는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개인의 경험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참가자의 내적 경험에 접근하고 주제와 관련된 의미를 찾는 것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Creswell, 2007), 14명의 재미 기

독인 기러기엄마의 기러기 경험과 그 의미를 질적 연구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모든 기러기부부가 자녀의 조기유학을 주요 목적으로 분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 대신 별거하기 위해 기러기 가족을 선택한 경우도 있고, 성인부모 자신의 교육적 성취를 위해 기러기 생활을 선택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자녀의 조기유학을 주목적으로 한국을 떠나 미국에 거주하게 된 기러기엄마들로 한정하였다. 기러기부부의 분거기간이 짧으면 새로운 가족생활의 적응에 몰입되어 부부관계의 변화에 대해 구체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분거기간이 5년 이상이 된 기러기엄마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4명의 참가자들의 연령 분포는 모두 40세에서 50세 사이였으며 기러기엄마로 미국에 거주한 기간은 5년에서 7년 사이였다. 자녀의 나이는 첫째 아이의 대부분이 15-20세였고, 5명은 20세 이상이었다. 둘째 아이는 9명이 15-20세였고, 3명은 20세 이상, 2명은 둘째 아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거주를 위한 법적인 자격을 보면, 5명의 기러기엄마들은 학생 비자를 통해 거주하고 있었으며, 2명은 주재원비자, 1명은 여행용 비자, 그리고 6명은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였다. 5명의 학생비자를 취득한 참가자들은 원래 자신의 성취를 목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거주를 위하여 학업을 택한 경우이다. 그들은 언어 연수, 음악석사, 신학석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고, 커뮤니티 대학에서 컴

퓨터 학과를 전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남편의 직업은 사업, 자영업, 회사원, 교수 등이었다. 12명의 참여자들은 한인 교회를 참석하고 있었으며, 1명은 참석할 교회를 찾고 있었고, 나머지 1명은 인터뷰 당시 기독교 신앙은 있으나 종교 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자료수집절차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2012년 5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로스엔젤레스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기러기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방법이 사용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지인들에게 연구의 주제와 목적을 설명한 후 그들에게 적합한 사람들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렇게 지인을 통해 한 명의 참가자를 먼저 만나고, 그 후에 참가자를 포함한 지인들의 소개와 입소문으로 다른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다년간 임상경험을 갖춘 주 연구자가 직접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실시과정은 수년간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수퍼바이저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수행되었다. 모든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참가자 모집을 계속하였고, 최종 14명의 기러기엄마들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면접은 참가자들이 동의한 장소에서 실시되었으며, 주로 3-4시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접을 위해 반구조적인 질문과 열린 질문들을 사용하여 기러기엄마의 기러기 생활 경험을 깊이 탐색하였다. 면접 질문은 참가자의 기러기 생활의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기러기 생활 선택, 기러기 생활 적응과정, 가족관계의 유지와 변화, 새로운 커뮤니티와의 관계 구축 등을 포괄하였다. 면접 과정에서 명료화가 필

요하거나 참가자의 의도, 동기, 의미에 대한 더 깊은 탐색이 필요할 때 열린 질문이 활용되었다. 면접 전에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정보노출을 막고 보호하기 위하여 사례의 자료를 익명으로 사용할 것과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모든 면접의 내용은 참가자들의 동의를 통하여 녹음되었으며 연구자는 면접 과정에서 참가자의 행동관찰을 메모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 녹음된 면접의 내용을 축어록으로 만들고 NVivo 10 프로그램을 통하여 코딩작업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자료를 모으고, 분류하고, 개념화하고, 범주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코딩 단계에서는 먼저 면접 축어록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현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문장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런 후 문장에 대한 코딩 작업이 수행되었다. 모든 데이터를 NVivo 10 프로그램에 입력한 후, 개방 코딩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서 나온 개념들을 가지고 하위 범주들을 도출하고 다시 범주화하였다. 하위 범주는 몇 가지 범주로 묶었고 이는 2개의 차원으로 추출되었다. 그리고 이 자료는 관계문화이론의 관점을 통해 해석학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자의 편견을 줄이고 신뢰성(trustworthiness)을 높이기 위해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2명의 동료연구자들이 함께 자료의 코딩을 비교하였으며 범주화와 자료해석에 대한 토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기러기엄마들은 기러기 생활 속에서 많은

도전거리를 만나지만 기러기 생활 속에서 삶의 어려움을 건설적으로 다루고 자아성장을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해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였다. 기러기엄마의 경험을 자아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였을 때, 성장에 어려움을 제공하는 도전적 요인이라는 차원과 성장을 도와주는 긍정적 자원의 차원이라는 2개의 차원이 추출되었다. 도전적 요인을 스트레스 요인에 비유한다면, 긍정적 자원은 이에 대해 건설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개인 내적/외적 자원에 해당한다. 각 차원에서 개인내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구조적 요인이라는 세 범주가 추출되었다. 도전적 요인에서는 3개의 범주, 10개의 하위범주, 24개의 개념이, 긍정적 자원에는 3개의 범주, 10개의 하위범주, 21개의 개념이 추출되었다.

도전적 요인

먼저 기러기엄마들의 성장에 어려움을 제공하는 도전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도전적 요인은 기러기엄마들이 초기일수록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하였다. 도전적 요인의 범주, 하위범주와 개념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개인내적 요인

비자발적인 선택. 대부분의 기러기엄마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러기 생활을 선택하였지만, 몇몇 기러기엄마는 자신은 별로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간청 혹은 남편이나 시부모의 권고에 의해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기러기 생활을 선택한 경우, 특히 초기적응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

“기러기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경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모님이 오히려 나가라고 했는데... 돈을 대주신다고 했어요... 애들을 위해선 좋은데 나혼자 가라니까 힘든 게 있잖아요... 제일 어려웠던 점이 남편이 가버리고 나니까 마치 떨어져 가지고 나혼자 낙동강 오리알 된 기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Amy)

이러한 기러기엄마는 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후회하며 귀국에 대한 생각을 간절하게 많이 하였다. 한 기러기엄마는 자녀와 1년을 약속하고 기러기생활을 시작했지만 자녀가 계속 간청하여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 참가자는 “지금은 좀 후회해요. 일 년 있다가 갈걸... 그런데 지금은 오도 가도 못해요. 영주권도 들어가 있고”라며 당시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이와 같이 비자발적인 선택은 기러기 분거생활을 하는 동안 참가자들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혼란을 일으키고 후회감, 의욕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역할 유능감 저하. 한국에서는 자녀교육의 전반을 주도하던 엄마들은 미국에 오면서 그 역할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몇몇 기러기엄마들은 자신이 “제대로 된 엄마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한 참가자는 자신이 한국에서는 자녀의 학원을 챙기고 지식적 도움도 제공하는 “쓸모가 있는 엄마”였지만 미국에서는 “밥하고 빨래하고... 운전해 주는 신세”로 전락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는 미국 교육 환경 자체가 사교육을 그리 필요로 하지

표 1. 도전적 요인

범주	하위범주	개념
개인내적 요인	비자발적 선택	자녀의 요구 남편의 권고 시집의 권고
		가장역할에 대한 부담감 무능한 엄마역할
	역할유능감 저하	좌절된 관계의존성 사생활 노출에 대한 두려움
가족적 요인	관계 위축감	남편에 대한 불신 분거의 익숙함 친밀감의 부재 성적 욕구 차이 상이한 가족관
	부부 갈등	문화적응차이 권위주의적 양육방식 자녀의 학업성취 저조
	모자 갈등	문화적 차이 소통의 부재
사회구조적 요인	부자 갈등	미디어의 치중된 보도 부부중심의 사회체계
	사회적 편견	신분유지의 어려움 한국방문 제한
	신분유지의 필요성	언어의 장벽 인종차별
	미국내 차별	한국-미국의 물리적 거리 상호작용 기회 제한

않는다는 요소도 작용하지만, 자녀가 엄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 등의 문화적 적응이 빠르다는 점도 작용했다. 특히 언어적으로 유능해진 자녀들이 은행업무 등의 일상의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오히려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몇몇 기러기엄마들은 이러한 역할전도, 즉 자신이 자식에게 도움을 받을 처지인 것에 대해 큰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한 다수의 기러기엄마들이 한국에서의 엄마역할에 아빠역할까지 가중된 부담감을 보고했다. 한 참여자는 한국에서는 남편이 할 일을 여기 와서는 자신이 다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교통사고를 났을 때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해서 힘들었다고 토로하였다. 특히 자신만이 홀로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다는 생각은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가

중시켰다:

“그런데 여기는 와이프는 쉬운데 자꾸 내 혼자서 내가 보호자다... 내가 나도 모르게 부담이 큰 거예요. 만약 애가 나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할 때도 없고 내가 알아서 다 해야 한다, 그런 부담감이 들어서... 이게 보호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역할이니까요.” (Sharon)

관계의 위축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갈 때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불안을 경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기러기엄마의 경우, 자신이 기러기엄마라는 사실로 인해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하고 관계에서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 한 기러기엄마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묘한 눈치”라고 표현하며 “불편한 게 느껴지면서 안하게 되고, 가도 소리를 못 내겠는 거예요”라며 관계가 위축된 과정을 설명했다. 초기적응과정이나 이전 관계에서 “마음을 다친” 경우, “부탁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사생활 노출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 관계 위축감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러기엄마는 한국에서의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온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를 아직도 느끼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관계에서도 “드러내는 것” 즉 개방과 연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이러한 관계의 위축은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이어졌다:

“너무 외로웠어요.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밤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다락방을 기러기 엄마들끼리 모아놓은

게 아니라 싱글 다락방이니까 저의 힘들고 남편보고 싶고 혼자있는 게 외롭고 짐이 무겁고 이런 걸 췌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구요.” (Bora)

관계에 대한 위축감은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이민자들이나 남편과 사별 혹은 이혼한 사람들이 있으면 “배려아닌 배려”를 하게 되면서 상호공감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될 때 가중되었다. 한 참가자는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피하는 한 수단으로 교회의 일에만 너무 치우치다보니 나중에는 과중한 일로 인해 불평하게 되었다. 이 같은 경우는 자신이 관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일 중심으로 종교생활을 하다가 지친 경우라고 여겨진다.

가족적 요인

부부갈등. 남편에 대한 불신은 기러기엄마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고통이 되었다. 대다수의 엄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 홀로 있는 남편에게 외로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의식하고 있었다. 특히 성관계에 있어서 기러기 엄마 자신은 욕구가 있는데 남편이 한국에서와 다른 태도를 보인다고 말한 한 기러기엄마는 “가끔 불안하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요. 여기가 지옥이에요”라며 남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했다.

분거의 익숙함은 표면적으로는 갈등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기러기엄마의 내적 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가자는 외면적으로 자신의 부부관계가 좋다고 하면서도 자신과 달리 점점 독립적여 가는 남편의 삶에 “점점 제 자리가 없어지는 듯한 불안감”이 크

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참가자들은 남편이 없는 삶에 익숙해져 남편의 방문을 불편하게 경험했다. 한 참가자는 남편이 올 때마다 “홀아비 같은 냄새가 견디기 힘들다”고 했고, 다른 참가자는 남편이 오면 반찬 등을 남편에게 맞춰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했다. 이러한 기러기엄마들은 나중에 다시 남편과 함께 생활하게 될 때 “극복해야 할 껍”이 커지게 될까 봐 염려했다.

친밀감의 부재는 다수의 기러기 부부들이 호소하는 주요갈등요소였다. 물리적 거리로 인해 공유할 수 있는 시공간의 제약은 이들 사이의 공통적인 대화소재를 감소시켰다. 기러기 부부들은 주로 자녀교육에 대하여 얘기하게 되는데, 남편은 미국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아내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상호간 대화가 점점 어려워진다. 한 참가자는 부부가 만날 때 서로에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앞서면서 서운한 감정이 쌓이고 정서적으로 멀게 느껴지게 된다고 하였다. 또 다른 기러기엄마는 남편과 “알게 모르게 달라진 생각들”을 발견하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제적 지원 및 도구적 도움과 같은 남편의 역할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기러기엄마들 중에도 정서적 교류의 부족은 친밀감 부재로 인한 아쉬움으로 이어졌다. 기러기엄마들은 남편이 오랜만에 미국에 와서 집안을 둘러보고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같이 진술하고 재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으면 했다:

“우리 남편같은 경우는 원격 조정해요. 모든 빌 내야 하는 것은 다 인터넷으로 해요... 남편은 와서도 우리를 편안하게 살도록 뭔가 사서 설치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별로 나한테는 도움이 안된다 대신 애들이랑 말 한마디라도 하고 부대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서적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Amy)

다른 참가자는 “남편이 돈 한번 늦게 보낸 적이 없고” “전화를 하루에 한번씩” 함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무뚝뚝하고 답답”하여 “짜증이 나고” “서먹하다”고 했다. 기러기엄마들은 자녀교육을 위한 분거라는 기능적 가족체계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부부관계보다는 정서적 부부관계를 원하고 있었다.

부부의 성적 욕구 차이도 부부갈등으로 이어졌다. 성적 욕구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성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아내가 성관계에 흥미를 보이지 않은 남편에 대해 섭섭해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자신의 성적 욕구 표현에 남편이 “자신이 스님과 다름없다”해서 좌절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성적인 욕구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기러기엄마는 그것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고 말하며 그 의미를 축소시켰다. 어떤 모습이든 기러기 부부의 경우 육체적 친밀감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의 상이한 가족관도 부부 상호관계에 악영향을 주었다. 기러기생활의 시작은 부부가 함께 자녀교육을 위한 희생에 가치를 두면서 시작되는 편이지만, 막상 분거생활이 영위해 가는 동안 생기는 사건들은 부부간 의견조율을 필요로 한다. 한 기러기엄마는 경제적으로 기러기 생활의 영위가 어려워졌을 때, 남편은 부부위주의 가족관을 주장하며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지만 자신은 자녀를 위해 있어야 한다고 우기면서 이혼의 위기까지 이르

렸다. 다른 참가자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서 귀국하고자 하는데 남편은 아내가 자녀들을 더 돌봐주라고 해서 “혹시 내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라며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다.

모자갈등. 기러기엄마와 자녀의 갈등은 기러기 생활의 가장 큰 도전거리 중 하나이다. 이들 사이의 갈등에는 우선 문화적응의 차이와 자녀의 자기주장성이 문제가 되었다. 자녀는 특히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율성에 대한 요구가 커져 가는데, 미국문화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장려한다. 자녀는 빠른 언어습득을 바탕으로 그러한 문화에 빠르게 적응해가는 반면, 엄마는 미국 문화와의 접촉이 제한된 환경에서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태도로 아이를 대하는 경우 갈등이 생겼다. 자녀들의 태도가 “서구화”되고 “자기주장이 굉장히 강한” 것에 대한 불만은 기러기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애들이 미국에서는 예의도 없어지고 버릇도 없어지고... 제가 살면서 애들하고 부딪힘... 저는 너무 화나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며 회의감을 표현했다. 자녀가 자신에게 “조용히 해 시끄러워,” 라거나 “엄마는 입을 다무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라거나, 아니면 영어로 알아듣지 못하게 얘기할 때, 기러기엄마들은 당황하며 개인문화에서 오는 자녀들의 사고에 회의와 분노를 느꼈다.

또한 자녀의 학업 성취 저조는 기러기엄마들에게 큰 좌절경험이었다:

“투자한 것에 비해서 진짜 큰집을 하나 말아 먹었네요... 그 돈으로 한국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나왔을 텐데, 애들도 정서적

으로 안정되었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했나... 그런데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으면 성공한 거죠. 안 그러면 부부사이만 잃은 거죠. 희생을 감내한 만큼의 성과가 없어서 후회하죠.” (Irene)

일부 기러기엄마들은 자녀가 “리더십”이나 “활동성”은 좋다고 하면서도 기러기생활의 목적이 교육적 성공에 있다며 기대보다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자녀와 갈등한다고 했다.

부자갈등. 남편과 자녀 사이의 갈등 역시 기러기엄마들에게 심리적 괴로움을 증가시킨다. 남편과 자녀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관계에 있다고 보고한 몇몇 기러기엄마들은 스스로를 “중재자”로 인식하고 관계적 긴장감에 대한 부담감을 보고했다: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의 갭이 있죠. 남편이 미국에 오면 한국의 가부장적인 것을 요구하고 애들은 아빠에게 그렇게 안대하죠... 한국전통을 무시하니까 남편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있지요. 그러한 갭을 중간에서 아이들보고 남편에게 맞춰주라고 하는데 남편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남편이 언성이 높아져요.” (Irene)

한편 소수의 기러기아빠들은 자신이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녀와 가까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 기러기엄마들은 부자관계가 가깝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고했다.

사회구조적 요인

사회적 편견. 기러기엄마들은 한인사회에서 경험하는 편견을 “질투”, “낙인”, “부정적인 시선”, “편협한 인식”, “색안경”, “묘한 눈치” 등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치중된 미디어의 보도는 기러기엄마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참가자는 재미 한국 기혼여성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웹사이트(미씨)를 방문하였다가 사회적 편견을 실감하게 되었다.

“저는 한국 미씨는 웹사이트에서 많이 안 좋게 얘기하는 거 들었었어요... 기러기라고 다 바람피고 사치하고 한국에 세금 안내고 그런 것도 아니다. 한국에서 번 돈을 미국 와서 쓰는데 그게 답답할 일이 지... 저는 미씨를 보면서 욕하고 울었어요. 댓글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거의 정신 빠진 사람들, 아이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 (Bora)

엄마들은 한국의 미디어가 기러기아빠의 자살, 기러기엄마의 사치, 기러기부부의 불륜과 같은 부정적 면에 편중된 보고를 하여 사람들 인식 속에 기러기가족이 부정적으로 각인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기러기엄마들은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기러한 부정적 시각을 털어내려 노력하지만, 여전히 타인의 시각에 대해 “피해의식”, “자격지심”, “조심성”, “움츠림” 등의 반응을 보고했다. 절반 이상의 참가자들이 적어도 초기에는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질투의 대상으로 여겨지거나, 편견으로 대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부부중심의 사회체계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기러기엄마도 있었다. 특히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교회 공동체가 부부중심이어서 관계에 제약을 경험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한 참가자는 친하다고 생각했던 지인이 “한국에서 부부가 떨어져서 왜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후부터는 그들을 만나지 않게 되었다고 하였다.

신분유지의 필요성.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미국의 합법적 거주를 위한 신분유지의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합법적인 신분을 위해 미리 계획하지 않았던 교육기관에 등록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였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염려를 드러냈다. 특히 영주권 신청 등으로 인해 장기간 한국방문에 제한을 받게 된 몇몇 기러기엄마들은 가족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 힘들어했다.

미국내 차별. 언어의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미국의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소외감도 도전거리 중 하나였다. 한 참가자는 제한된 언어적 소통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바보 취급을 받는 느낌”을 받으며 스스로 “지적 장애인”이 된 것 같은 자괴감을 보고했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미국에 오니 아는 것도 없고 의지도 약하고 능력도 없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였다. 한 참가자는 미국 내 자신의 위치를 “아웃사 이더”로 표현하였고, 다른 참가자는 “소수민족에 대하여 너그럽지 않음”을 경험한다고 토로했다.

한국-미국의 물리적 거리. 일부 참가자들은 통신의 발달로 인해 물리적 거리가 주는 친밀감의 제한을 부정하였지만, 대부분의 참

가자들은 물리적 거리감이 주는 관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 참가자는 “밤에 같이 잠자리에 들사람이 있다는 것”을, 다른 참가자는 “가까이 있으면서 부대끼고 싸우기도 하는 것”을 그리워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아침저녁으로 인터넷폰으로 남편과 통화하면서 사소한 것까지 나누지만 감정적인 것이나 “미묘한 감정의 들쭉날쭉한 것”까지 나누기는 힘들다고 보고하였다.

긍정적 자원

기러기엄마들은 기러기 생활 속에서 많은 도전거리를 만나지만 여러 가지 긍정적 자원을 통해 도전을 극복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자아의 성장을 이루기도 하였다. 기러기엄마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긍정적 자원의 범주, 하위범주, 개념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개인내적 요인

성격특성. 기러기엄마들은 미국이라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남편의 부재 가운데 적응해 가는 과정이 자신이 이제까지 익숙했던 역할을 벗어나 새로운 역할을 시도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술했다. 구체적으로 많은 참가자들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남편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자신이 맡게 되는 것과 한국에서는 별 어려움 없이 처리했던 일들을 미국에서는 언어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역할 유연성(role flexibility)이 필요한 것을 언급했다. 한 참가자는 “남편의 일”을 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이에 대해 “애들도 그렇고 저도 많이 강해지고”라고 하여 이러한 역할을 맡는 것이 자신의 심리적 강인성

을 강화시켜준다는 것을 설명했다. 다른 참가자는 남편의 경제적 부담을 나눠지려는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자아를 찾고 자신감까지 생겼음을 설명했다.

“제가 직업이 머리를 자르는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우연히 배우게 되었죠... 여기 오니까 먹고 살기 위해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한국에서는... 집에만 있었고 집안일만 하고 애들만 키웠었어요. 근데 훈련을 혹독하게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나를 찾았다고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미용사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머리를 잘라 본 적도 없었는데, 제가 남의 집에 가서 머리를 해주고... 저는 그 일이 너무 좋아요.”
(June)

기러기엄마들 중에 엄마역할에만 자신을 한정짓고 자신에 대한 투자를 “너무 아까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녀의 성취가 이들의 삶의 만족을 결정짓게 되지만,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자기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참가자는 자기개발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성 차원에서 자기개발을 정당화하면서 자기개발에 투자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은 바이올린하고 성악을 해요. 저는 너무 재미있어요...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금액이지만, 저는 그동안 나한테 투자 안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왜 이려고

표 2. 긍정적 자원

범주	하위범주	개념
개인내적 요인	성격특성	역할 유연성 자기성장욕구 정서적 개방성
	종교성	신앙공동체의 사회적지지 신과의 친밀감 경험 종교활동을 통한 위안 영적 의미 부여
가족적 요인	부부요인	부부간 정서적 소통 부부간 신뢰 공통된 종교성
	자녀의 적응적 생활	학업적 성취 신앙적 성장
	부모-자녀간 원만한 관계	자율성을 존중하는 양육태도 자녀와의 원만한 의사소통 부자간 지지적 관계
	시댁과의 분리	머느리 역할에 대한 부담감에서 해방
사회구조적 요인	통신의 발달	발달된 통신의 적극적 활용
	한인사회	한인사회의 접근성 친척 및 지인의 체류
	교육환경	엄마의 교육적 역할 감소 자기주도적 교육환경
	신분유지의 필요성	새로운 적성탐색

살아야 돼? 나도 내 개발을 하고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과감히 투자를 했죠. 저는 맨날 이것만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Diana)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서적 개방성은 진솔성에 기초한 의미 있는 관계망을 유지해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으로 개방적인 참가자들은 자신과 친한 사람에게 “편안하게 속을

다 오픈”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관계를 통해 많은 위로와 즐거움을 얻는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정서적 개방성은 아무에게나 자신을 드러내는 무모한 개방이 아니며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는 과정을 포함한다. 또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드러내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정서적 개방성 역시 미국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자신의 성격을 “그냥 성격이 모르면 쫓아가서 물어보

고 하는 성격”이라고 소개하며 적응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라고 했다. 의미 있는 관계 경험과 성취경험은 정서적 개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참가자는 미국에서 “진실하게 오픈”하는 관계를 경험하고 직업을 통해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전까지 남편에게 “말대답을 못했는데” 이제는 “슬프면 울고 아이들이 속 썩이면 남편한테 얘기하고”가 가능해졌다고 보고했다.

종교성. 참가자 대부분은 자신의 종교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여를 보고하였는데, 이들의 종교성은 기러기 생활 속에 의미를 찾고 일상의 어려움을 건설적으로 대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앙공동체의 사회적 지지는 교육관련 정보제공과 변호사 소개와 같은 실질적이고 도구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타지생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외롭잖아요. 그런데 신경도 많이 써주고 챙겨주고 운전 면허증 따는 것부터 정착하는 것을 많이 도와 주셨어요. 그리고 외롭고 힘든데 철야예배 같은데 가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다과를 하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말할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Sharon)

많은 참가자들은 또한 신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 것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보고했다.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기도시간 등을 통한 영적 경험은 의미 있는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을 제공하였다. 한 참가자는 신(하나님)에 대해 이전에는 “집안의 모퉁이 한 칸에 서있는 장식품”이었

으나 이제는 “알아 가면 알아갈수록 눈물이 나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러한 초월적 존재와의 친밀감은 참가자에게 자부심도 제공하였다. 기러기 생활 속에서 “훨씬 믿음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한 참가자는 자신이 “훨씬 신실해지고 반듯해졌다”고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예배와 기도 같은 종교 활동 속에서 삶의 어려움에 대처할 “답”과 “자신감”을 얻으며 위안을 얻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은 낮은 환경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는 안전감을 제공해주었다. 이들은 기러기 생활 속에서 겪는 힘든 일들을 통해 더욱 신과의 관계를 추구하게 되고, 그것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성숙”이나 “은혜”로 승화시켜가고 있었다:

“너무나도 갑자기 환경이 달라져서 사실은 제가 인생에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부흥이에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게 되고. 정말 사람이 고난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구나 체험하게 됐어요. 살다가 힘들어 질 때 실망도 하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랬어요.” (Karen)

특히 기러기엄마들은 자녀교육을 주목적으로 기러기 생활을 선택한 만큼 자녀들이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커다란 실망감을 경험하는데, 이 때 여러 명의 기러기엄마들은 자녀들의 신앙적 성장이나 자신이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나를 보는”, 즉 자기이해의 심화에 “축복”이라는 영적 의미를 부여하며 기러기 생활의 부정적 경험 속에서 긍정적 의미를

발견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적 요인

부부요인. 기러기 가족의 특징 중 가장 부각되는 면 중 하나가 부부가 떨어져 산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구조에 대해 자녀교육을 위해 부부관계를 희생시킨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러기엄마들은 자신의 부부관계가 기러기 생활로 인해 향상되었다고 보고한다. 남편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갖는 “질적으로 좋은 시간”과 전화와 화상채팅 등을 통한 “더 많은 대화”가 그 비결로 언급되었는데, 이 중심에는 정서적 소통이 있었다. 부부간 정서적 소통이 부재한 경우 아내는 “고마움은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서먹해지는” 경험을 한다.

부부간 신뢰는 분거라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러기엄마가 정서적 안정감을 갖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가자중 다수가 부부관계에 대해 “서로 신뢰한다” 혹은 “서로 믿는다”고 보고했다. 부부간 신뢰의 바탕이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서로 얘기하고” “서로에 대해 개방적인” 소통이 꼽혔고, 다른 하나로 남편의 신앙이 지적되었다. 한 참가자는 “저희 신앙이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흔들리지 않는 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신뢰를 해요.”라고 남편의 신앙이 자신의 신뢰의 토대임을 분명히 했다. 종교성이 높은 참가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통된 종교성이 참가자의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러기 생활 중 남편이 같은 신앙을 갖게 된 한 참가자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소원했던 관계로 남편의 종교적 전향으로 인해 부부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관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했다.

자녀의 적응적 생활. 자녀들이 새로운 문화와 교육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는 기러기엄마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다. 그 중에서도 자녀가 높은 학업적 성취를 이루면 기러기엄마는 큰 보람과 감격을 경험한다. 한 참가자는 자녀가 유명대학의 합격통지를 받고 온 날 “허그를 하고 둘이 같이 울었던” 경험을 나누며 그때의 감격을 되새겼다. 특히 “대학가가 너무 힘든” 한국 상황과 비교하며 자녀의 성취를 만족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에 가기 전 학령 단계의 자녀를 둔 기러기엄마들은 특별한 사교육 없이 학교 공부를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한 종교성이 높은 집단인 만큼, 다수의 참가자들은 자녀의 신앙적 성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부모-자녀 간 원만한 관계. 몇몇 참가자들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장려하는 미국문화 속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에 변화가 생겼음을 얘기했다:

“한국에서는 제가 학교에서도 활동을 잘 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제가 학교를 잘 안 갔어요... 우리 딸은 자기가 알아서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 딸은 진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한국보다 훨씬 엄마 역할이 쉬웠어요.” (Karen)

이렇게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양육태도는 미국교육과도 잘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

참가자는 “자기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강한” 자녀의 태도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아이들 얼굴이 밝아진 걸 보면 좋다”고 말했다.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에 있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간섭하기보다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해야하는 태도를 견지하려할 때 기러기엄마는 심리적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자녀의 학업성취를 이루려는 통제적 태도는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추구하는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커다란 저항을 불러와 기러기엄마의 양육 스트레스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았다.

자녀와의 원만한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 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는 요소가 되었다. 원만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몇몇 기러기엄마들은 자녀가 “한국말을 잘 잘하고” “한국 노래, 한국 영화”와 같은 한국 문화를 선호하는 것을 부모-자녀 간의 원만한 소통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기러기 가족의 부모-자녀 관계를 생각하면 엄마와 자녀관계만 떠올리기 쉬운데, 아빠와 자녀 관계 역시 기러기엄마에게 중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빠와 자녀가 친밀하다고 보는 기러기엄마들은 남편에 대해 긍정적 정서를 보고했고 남편이 방문하는 동안 자녀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시사했다.

한국에서 며느리 역할에 대한 부담감이 특별히 컸던 두 명의 기러기엄마들은 기러기 생활로 인한 시대과의 분리가 주는 정신적 여유에 대해 언급했다:

“저는 완전히 에스맨이어야 해요. 그때 제가 노 했을 때 완전 거부를 당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에 와서 좋았어요. 기러기 오기 전에 저는 어머님 때문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심정이었어요... 여기 와서 우리 아들하고 테니스 치고 놀고... 이 공기 너무 좋다 그러면서 즐기고 있어요.” (Amy)

이 참가자는 의무로 주어지는 역할의 부담감에서 해방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사회구조적 요인

통신의 발달. 소수의 기러기엄마들은 전화나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부부관계의 질이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현대문명의 발달은 먼 거리의 분거에도 불구하고 관계유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많은 참가자들이 “070 전화”, “화상채팅”, “스카이프”, “카카오톡”을 통해 자주 가족 간에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발달된 통신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러기엄마는 남편과 친밀감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한 참가자는 “거진 매일 화상으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잘 안들구요... 이렇게 문명의 이기, 화상채팅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괜찮은 거 같아요”라며 발달된 통신의 활용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한인사회. 참가자들 모두 캘리포니아 LA 근교에 위치한 곳에 살고 있었다. 이러한 한인사회의 접근성은 문화적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한 참가자는 처음에 한인사회에서 먼 곳에 살았던 경험에 대해 “외롭기도 했고... 한국 커뮤니티

가 너무 머니까 불편하고 힘들었다”라고 회고했다. 그런가 하면 세 명의 참가자들은 한인 사회 속에서만 지내면 “발전할 기회가 없다”고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많은 참가자들은 친척 및 지인 체류로 인해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해 LA근교를 거주지로 결정했다. 필요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회구조적 환경은 기러기생활 적응을 촉진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참가자는 지나친 도움에 대해 “참견”으로 느껴 결국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인사회나 친척 및 지인의 체류가 미국생활 적응과 편리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나친 편안함의 추구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이들 가운데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환경. 미국의 교육환경은 참가자들이 기러기생활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만큼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면이 부각되었다. 특히 미국은 공교육의 중요성이 한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엄마의 “학원들 쫓아다니는” 등의 사교육 관련 역할이 감소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참가자들은 엄마역할의 부담감에서 해방된 만족감을 나타냈고, 이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 속에서 한 참가자는 이로 인해 의미 있는 자아성찰을 이루기도 했다:

“제 생각대로 하는 방법을 놓으면 애가 뒤쳐질 것 같고 그런 불안감이 많았었는데, 여기 와서 살면서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나를 다루시는 과정 중의 하나로 왔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5-6년

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속에서 잡혀지지 않는 것을 쫓아가면서 돈을 버리고 애들 버리고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내 진짜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뒤를 하고 다녔었기 때문에.” (Sara)

미국의 자기주도적 교육은 많은 기러기엄마들에게 자녀의 자율성을 격려해주고 자녀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다. 한 참가자는 “여기서는 자기가 한 만큼의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니까 휩쓸릴 필요도 없고, 재가 나의 골이야 그럴 필요가 없고, 나만 잘하면 되니까요.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니까요. 비교도 안 하고”라고 보고했다. 또한 자신의 장점을 격려해주는 학습 분위기 속에서 자녀의 새로운 장점을 발견하게 되기도 했다.

신분유지의 필요성. 미국체류를 위해서는 합법적 신분유지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기러기엄마들은 교육기관에 등록하거나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절반 이상의 기러기엄마들이 이것이 새로운 적성탐색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신학공부, MBA, 음악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의 재능과 흥미를 탐색하고 있었다. 한 참가자는 신분유지만 하려다 그만두려던 공부를 통해 “제가 뭘 원하는지 알았어요”라고 말했다. 신분유지는 참가자들에게 분명한 도전거리가 되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참가자들은 새로운 차원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논 의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부각된 기러기 현상은 외적으로는 교육체계의 문제와 세계화시대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한국의 문화의 영향에 따른 가족의 구조와 여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관점에서의 성장을 강조하는 관계문화적 상담이론은 한국의 어머니들이 기러기 생활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 기러기 생활 중에 겪는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극복방안을 모색하기에 적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관계문화적 이론의 주요개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담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자기공감(self-empathy)과 자기수용: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

기러기 분거 경험은 기러기 엄마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관계문화적 이론에서는 성장을 촉진하는 요소로 관계적 유능성(relational competence)을 강조하는데, 관계적 유능성이 있는 사람은 자기돌봄 능력이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상호적인 배려와 공감에 있는 사람이다(Jordan, 2010; 이은진, 이지연, 2013). 본 연구의 많은 기러기 엄마들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경험,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성찰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며 성장했다. 많은 기러기 엄마들의 자아는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아를 상실한(selfless) 만남 속에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자녀와 가족을 위

해 희생하였다. 자신의 자아를 자녀의 성공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였기에 자녀의 성취는 만족감과 자부심이 되었고, 자녀의 명문대 입학 실패는 엄마 자신의 실패였다. Stiver(1991)는 자식에게 집착하는 어머니들은 자신의 자아와 자녀의 자아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기러기엄마들이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했던 것은 한국의 사회 통제적 이미지의 영향이 크다. 관계문화적 이론에서 통제적 이미지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소외시키는 왜곡된 이미지이다(Jordan, 2010). 한국의 유교문화는 여성들이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이상화한다(Choi, 2005). 교육적 성취가 계급이동의 주요 수단이 되고(Tsuya & Choe, 2004), 남성에게 유리하면서도 남성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직업적 구조가 유지되면서, 자녀의 교육을 주도하는 엄마의 역할이 더 강화되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 중에는 기러기 생활을 위해 자신의 직장과 사업을 포기하기까지 한 사람들도 있었다. 자녀의 성공이 곧 가족의 성공이라는 관념은 바로 현재 한국을 움직이고 있는 사회 통제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가정과 직업을 균형 있게 이루어가는 엄마상과 아빠상의 발굴, 양성 평등한 사회구조적 분위기 등의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이 통제적 이미지는 변해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러기엄마의 희생이 기러기 엄마들에게 진정한 자아를 만나게 하는 역설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기러기 분거가 진행되면서 도전적 요인을 건설적으로 다루었을 때 도전적 요인이 기러기 엄마들의 개인적 성장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외로

움, 소외, 차별,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였고, 그것은 소위 “엄마 역할 잘하는”, “다 챙기는” 유능한 엄마의 이미지의 수정을 요구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서처럼 남편을 돌보지 않아도 되고, 자녀교육을 위해 더 좋은 사교육 정보를 알려주고 스케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발견한 기러기엄마들은 또 다른 성장의 한 출발점에 서있게 된다. 그들 중 자신의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좌절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기러기엄마들은 자아의 성장을 통해 자기 공감과 수용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돌볼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자신을 위해 쓰는 돈과 시간을 아끼워줬던 몇몇 기러기엄마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 투자하며 그에 따른 기쁨을 누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어공부, 학업, 취미생활을 하게 된 많은 기러기 엄마들이 잠재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

상호공감(mutual empathy)과 성장촉진관계(growth-fostering relationships)

관계문화적 이론에 의하면 진정한 성장은 자아의 발견과 수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확장되어 성장촉진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계문화적 이론에서는 자아의 성장뿐 아니라 서로 형성해가는 과정의 관계를 강조하고, 그러한 상호관계성이 개인의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Jordan, 1997). 진정한 자아의 시작인 상호관계(connection)는 감정적인 교류를 통한 정서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Miller, 1984). 본 연구에서 기러기엄마들은 특히 기러기 분거생활 초기에 상호관계의 부재

로 어려움을 겪었다. 타지에서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도전이다. LA의 한인사회, 한인교회, 미디어 등이 기러기엄마에 대해 보여준 편견으로 인해 기러기엄마의 관계에 대한 예민성과 소외감은 증가하였다. 사회적 분위기에서 오는 무시, 적대적 반응, 질투는 기러기엄마에게 수치감을 주었고, 몇몇 기러기엄마들은 관계단절(disconnection)을 통한 소외를 택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인 관계적 탄력성(Jordan, 2004)을 가진 기러기 엄마들은 그러한 환경에도 용기를 내어 스스로 소외되지 않고 커뮤니티 속에서 신뢰할 만한 대상을 찾아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역량강화(mutual empowerment)를 할 수 있는 관계적 유능성을 증가시켜갔다(Jordan, 2004).

외적 요인이 아닌 가족적인 요인도 상호관계(connection)에 영향을 미쳤다. 진솔성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능력으로 힘의 행사 없이 서로 동등하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성장하게 해준다(Miller et al., 2004). 자녀와의 관계에서 진솔성(authenticity)을 가지고 감정을 개방하고 의견을 나누면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어 상호관계가 이루어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자녀를 통제하여 자녀와의 갈등과 대립을 통해 기러기 생활의 의미 자체가 흔들렸다. 관계적 탄력성으로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해 주는 기러기엄마들은 자녀의 성장을 도울 뿐 아니라 자녀의 영향을 받아들여 자신도 성장을 경험했다.

남편과의 상호관계가 어려운 기러기엄마들도 관계를 향한 갈망과 회피를 동시에 가졌다. 기러기 아빠들이 정서적 교류를 어려워하고 진솔한 대화를 힘들어 하는 것으로 묘사된 경

우가 많았다. 한국의 유교문화에 기초한 전통적인 남성상은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권위를 통해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이미지가 있다(Slote, 1996). 그러한 한국남성들 안에 내면화된 남성상은 상호공감을 저해한다. 또한 밖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정의되는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집에서도 기능적인 남편의 역할을 최상으로 여기는 모습은 가장 가까운 아내와 가족과의 감정적 교류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러기아빠의 정서적 개방성과 공감능력은 부부관계와 부자관계를 윤택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Gilligan(1982)은 사회의 전통과 관습에 기반한 억압적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고하고 자신의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하는 단절을 ‘정치적 저항(political resistance)’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경직된 위계적 관계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에 온 몇몇 기러기엄마들의 선택은 건강한 결정이다. 한국의 여성에게 고통을 주는 또 다른 통제적 이미지는 시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효부의 이미지이다(Choi, 2005). 시부모님의 간섭으로 고통 받던 주부들은 그러한 통제적 이미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기러기분거를 통해 해방과 자유를 누렸다. 하지만 한 기러기엄마는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온 트라우마로 인해 만성적 관계단절의 상태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고립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관계문화이론에서 일시적 관계단절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관계단절이 반복되면서 만성적 관계단절(chronic disconnection)이 오면 관계에 대한 상처를 줄이고자 자기소외가 일어난다(Miller et al., 2004).

한국에서 남편에게 의존했던 기러기엄마들은 독립적인 남편에게서 정서적 교류에 의한

안정과 만족을 얻지 못하여 불안해했다. 관계문화적 관점에서는 여성의 의존을 병리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라고 본다(Jordan, 2010). 따라서 이러한 여성의 불안감은 정상적일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자신의 관계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의존을 통해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히려 지나치게 독립적인 남편들에게 건강한 의존의 욕구를 부인하고 있지 않는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 상호공감과 진솔성에 기반한 상호관계를 경험한 기러기엄마들은 관계적 유능성이 증가하면서 역량강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성장은 사람이나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지지가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많은 기러기엄마들이 신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도 이러한 성장을 이루어 갔다.

삶의 의미 발견과 영적성장

관계문화적 이론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관계문화이론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분야의 적용과 분석에도 유용하였다. 본 연구의 기러기엄마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보고하였고, 이들 중 대다수가 높은 종교적 관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 체험을 통한 신과의 친밀감, 혹은 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여성들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관계와 세계관이 확장되는 등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삶의 어려움에 대한 도피처로만 삼거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축감으로 종교적 행위에만 열중하는 식으로 방어적으로 활용하면 이는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한 참가자는 관계 대신 종교 활동에 치중하면서 지나친 책

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토로했다.

연결과 단절은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신과의 관계도 포함한다. 즉 자신의 결핍이 신에게 의존성을 더 부추기고 그로 인해 자신이 잘하는 것이 없어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존재감의 회복이 일어났다. 그것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계기로 확장되었다. 역으로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이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을 통해서 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했다. 신분유지의 어려움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찾게 된 기러기엄마들은 고난의 여정을 신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삶의 의미를 해석했다. 이렇게 관계의 의존성에 대한 바람을 알고 추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호관계를 만들어내는 성장촉진관계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런 기러기엄마들은 가장 어려운 현재의 시기가 “가장 영적인 부흥기” 혹은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고 말하였다. 기러기생활을 광야, 황무지 같다고 표현한 기러기엄마들은 광야를 통과하여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성장에도 참여하는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경험을 했다. 미국에 이민한 한국인들이 대부분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발견이 주는 의미가 크다.

관계문화적 상담개입을 위한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관계문화적 이론을 바탕으로 기러기엄마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관계문화 상담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관계문화적 상담은 내담자의 태도, 가치, 관점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가 상호관계를 통한 관계 탄력성을 형성

하는 것이다(Jordan, 2004). 기러기엄마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개인상담, 부부상담, 그리고 가족상담에서 다루어질 내용에 대해 제언하고, 예방적 차원이나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심리상담 세미나와 기러기엄마들이 주로 활동하는 사회구조적 맥락이 되는 한인교회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개인상담을 할 때는 먼저 기러기엄마의 현재의 관계와 관계패턴에 주목하면서 상호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시적 단절, 혹은 만성적 단절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관계단절 상태에 있다면 그 근원이 개인적 이유인지 사회적 이유인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LA지역에 팽배해 있는 기러기엄마에 대한 편견으로 수치와 모욕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라면 통제적 이미지에 의한 관계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이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그러한 편견을 받는 것을 자신의 잘못이나 탓으로 여기지 않도록 자각시키고 도와주어야 한다. 남편이나 자녀와의 일시적인 관계단절 상태라면 그들과 일어나는 갈등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오해가 있다면 진솔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계문화적 상담은 다른 상담과 달리 상담자가 진솔성을 가지고 자신을 오픈하고 상호관계를 시도하여 내담자가 상호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Jordan, 2004). 따라서 적절한 타이밍에 상담자 자신의 취약성 경험과 그 극복과정을 들려주는 것도 유익하다. 내담자는 누군가 자신에 의해 영향을 받고 감동받고 변화하고 있다는 경험을 통해 상호관계를 회복하고 치유를 경험하게 한다. 또한 지배적인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또는 시부모님의 간섭에 지쳐서 도피를 통한 관계단절상태에 있다면 건강한 관

계단절임을 인식시켜주고 이러한 선택을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만성관계단절의 상태에 있다면 관계에 대한 거부감 뒤에 강한 상호관계의 열망이 있음을 인식시키고 그 전략을 존중하며 어렸을 때부터 관계에 의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탐색하며 상담자와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진솔성있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겪은 상처에 대해 자기 공감과 자기 연민을 가지고 부정적인 관계이미지들을 수정하면서 관계의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이은진, 이지연, 2013).

부부 상담에서도 부부에게 사회 통제적 이미지에 의한 서로의 관계적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해주며 특히 유교문화에 영향을 받은 가부장적인 남편과의 위계적인 관계가 기러기엄마에게 고통이 됨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그런 면에서 부부가 기능적일 뿐 아니라 정서적인 면이 충족되어야 균형 잡힌 관계임을 자각하도록 해준다. 상담자는 부부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감정적 유대감을 통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게 격려한다. 또한 부인의 관계단절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남편에게 인식시켜 준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부부가 서로 진솔성을 가지고 상호관계를 하여 배우자의 성장을 도와주는 성장촉진관계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자녀양육에 더 참여할 수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는 것은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Stiver(1991)는 어머니들에게 자식들에 대한 지나친 신경을 줄이라고 하기 보다는 아버지에게 자녀 양육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의 관계성 향상에 도움이 준다고 주장하였다.

가족 상담에서도 역시 자녀와의 상호관계를 위해 중재한다. 부모-자녀 갈등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통제적 권위 행사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관계문화적 상담에서는 이러한 힘의 불균형을 지양한다. 힘의 불균형 속에서 자녀는 자신을 진솔성 있게 표현하지 못하고, 표현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 속에서 자녀는 방어적으로 더욱 강하게 자기주장을 하여, 부모는 그것을 반항으로 경험할 수 있다. 미국에서 있으면서 부모는 자녀가 주류사회의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자녀의 자기주장성이 미국 주류문화에 동화된 탓으로 지각하고 그로 인한 정서적 거리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 참여한 기러기엄마들의 대부분의 자녀는 청소년기에 속해 있었다.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독립성이 증가하는 시기로, 한국의 청소년들 역시 부모와의 끈이 끊어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자녀의 자기주장성을 지나치게 문화적 차이로 인식하면서 감정의 끈이 끊어지기 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도 기러기부모-자녀 관계가 상호적 관계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적 상담보다는 단체로 받는 교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리상담적 세미나를 통해 접근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예방적 차원에서 기러기 생활을 고려하고 있는 한국의 기러기 가족을 대상으로 미리 예상되는 어려움과 극복방안에 대해 교육할 수 있다. 또한 이미 미국에 정착하고 있는 기러기가족을 대상으로

한인교회 등의 커뮤니티가 주축이 되어 심리 상담적 세미나를 계획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미나에서는 관계를 통한 성장을 설명하고, 사회 통제적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자기이해를 재해석 하도록 도우며, 자기돌봄이 어떻게 남을 돌보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Gilligan(1982)이 말한 돌봄의 도덕성과 같은 이론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진솔한 의사소통의 기술과 공감훈련 같은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계문화이론은 문화, 사회적인 영향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므로 상담자는 LA지역에 있는 신앙공동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다. 한인사회나 한인교회는 미디어에서 부정적으로 치중된 보도로 인해 기러기엄마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러기엄마도 자신이 겪는 부당한 고통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만, 심리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한인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신앙공동체의 리더나 소그룹 리더들을 초대한 간담회를 열어 기러기엄마들이나 이민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잘 적응하도록 실제적인 도움과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경험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 상담실을 설립하되 구성원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외부의 상담자를 고용하여 공동체 내의 상처를 효과적으로 다루도 갈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미국 캘리포니아 LA지역의 기러기엄마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지역의 기러기엄마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한인교회에 참석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가졌거나 신앙이 없는 기러기엄마들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셋째, 부부역동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가 기러기엄마들의 보고에 의존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넷째, 한차례의 면담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관계의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러기엄마의 경험과 성장에 대한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였고 구체적인 관계문화적 상담 개입을 논의하였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경화 (2010). 재미 기러기 어머니의 적응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 211-239.
- 김기화, 양성은 (2012). 기러기가족의 분거 경험에 관한 사회교환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50, 11-23.
- 김선미 (2007). 재미 국제 장기 분거가족 전업주부의 일상적 삶과 정체성 유지에 관한 연구: '기러기 엄마'되기 과정.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 171-189.
- 김성숙 (2006). 기러기아빠의 생활 변화와 적응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 141-158.
- 김양호, 김태현 (2009). 장기분거가족에 대한 일 연구: 기러기 가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 297-326.
- 김양희, 장운정 (2012). 장기분거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러기 가족에 초점을 맞추

- 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 1-23.
- 김영희, 최명선, 이지향 (2005). 뉴질랜드 거주 조기 유학생의 생활실태와 사회적지원 방안. 청소년학 연구, 13, 55-84.
- 김주현, 송민경, 이현주 (2010). 기러기아빠의 분거가족 결정과 유지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 107-133.
- 김희정, 최연실 (2012). 자녀 해외유학 ‘기러기 가족’의 가족구조 분석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관점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 2965-2986.
- 엄명용 (2002). 장기분거가족의 전문직 남성문제: ‘기러기아빠’.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0, 25-43.
- 유희정, 김세서리아 (2005). 자녀 해외유학 “기러기가족”의 가족구조 분석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13, 2965-2986.
- 이은진, 이지연 (2013). 관계-문화적 이론(RCT: Relational-Cultural Theory)의 이해와 국내 상담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고찰. 상담학 연구, 14, 2585-2620.
- 조 은 (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신글로벌 모자녀 가족사례연구. 경제와 사회, 64, 148-173.
- 조은숙 (2010). 초국적 가족의 분거와 순차적 이민을 통한 재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체계 변화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 91-115.
- 조은숙, 남영주 (2010). 초국적 분거부부의 섹슈얼리티와 친밀성: 기러기 가족현상을 통해 본 한국인의 부부관계 일 특성.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8, 135-160.
- 조혜선 (2004). 조기교육과 어머니역할. 한국어 성학, 20, 123-161.
- 최양숙 (2005). 비동거 가족경험: ‘기러기아빠’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최양숙 (2006). 부부분거경험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본 기러기가족 현상. 가족과 문화, 18, 37-65.
- 최양숙 (2008).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인한 분거가족에서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기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 67-97.
- Ahn, K. (2009). *South Korean transnational mothers: familism, cultural criticism and education projec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xwell School of Syracuse University.
- Cha, C., & Kim, E. (2013). Assessing the role of culture in Korean Goose Mothers' live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20, 1-8.
- Choi, H. A. (2005). *Korean women and God: Experiencing God in a multi-religious colonial context*. Maryknoll, NY: Orbis Books.
- Chung, J. (2008). *Our stories, our lives: Korean women, self esteem and practical theolog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mory University.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Sage.
- Duffey, T. (2007). Promoting relational competencies in counselor education through creativity and relational-cultural theory. *Journal of Creativity in Mental Health*, 2, 47-60.
- Gilligan, C. (1993).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ordan, J. (1997). Relational development: Therapeutic implications of empathy and

- shame In J. Jordan (Ed.), *Women's growth in diversity* (pp.138-161). New York, NY: Guilford Press.
- Jordan, J. (2000). The role of mutual empathy in relational/cultural 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Session*, 56, 1006-1016.
- Jordan, J. (2004). Toward competence and connection. In J. Jordan et al. (ed.), *The complexity of connection* (pp.11-27). New York: Guilford Press.
- Jordan, J. (2010). *Relational - cultural 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Kim, T. (2012). *Globalization, new technologies, and intercultural flexibility: Communication and culture of Korean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klahoma.
- Lee, H. (2010). 'I am a Kirogi Mother': Education exodus and life transformation among Korean transnational women. *Journal of Language, Identity, and Education* 9, 250-264.
- Miller, J. (1984). *The development of women's sense of self*. Wellesley, MA: Wellesley College, Stone Center.
- Miller, J. (1991). The development of women's sense of self. In J. Jordan et al. (eds.), *Women's growth in connection* (pp.64-89).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Miller, J., & Stiver, I. (1994). *Movement in therapy: honoring the strategies of disconnection*. Wellesley: The Stone Center, Wellesley College.
- Park, S., & Abelmann, N. (2004). Class and cosmopolitan striving: Mothers' management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77, 645-672.
- Shin, H. (2010). 'Gireogi Gajok': *Transnationalism and language lear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 Slote, W. H. (1996). Koreans abroad in therapy. In A. Roland, *Cultural pluralism and psychoanalysis* (pp.187-198). New York, NY: Routledge.
- Stiver, I. P. (1991). Beyond the oedipus complex: Mothers and daughters. In J. D. Jordan et al. (ed.), *Women's growth in connection* (pp.97-121).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Tsuya, N. O., & Choe, M. K. (2004). Investments in children's education, desired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N. O. Tsuya & L. L. Bumpass. *Marriage, work, and family life in comparative perspective: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p.75-94).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차원고접수 : 2014. 07. 27.

심사통과접수 : 2014. 09. 12.

최종원고접수 : 2014. 09. 26.

Korean Kirogi Mothers' Experience and Growth From the Relational-Cultural Therapy Perspective

Cho, Inhyo

Shim, Eun Jung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psychosocial needs and growth of Korean Kirogi mothers, and provide clinical implications from the relational-cultural therapy perspectiv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14 Christian Kirogi mothers who were staying in Los Angeles (LA), California. Data was transcribed, and coded utilizing an analysis program called NVivo 10. Two dimensions, challenges and positive sources, emerged through the analysis process. These two domains were each saturated into three sub-domains: intrapersonal factors, family factors, and socio-structural factors. The results demonstrated how Kirogi mothers faced and coped with life difficulties in relationships and sociocultural environment. When they face difficulties, they were able to experience growth through self-empathy and mutual empathy in growth-fostering relationships. Additionally, their relationship with God helps them grow further. Finally, effective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clinical interven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 Kirogi mothers, Relational-cultural therapy, Psycho-social growth